

200자 안내

쉽게 찾는 중국 경제 용어

오갑원 외 지음

중국의 개방정책 이후 생겨난 신생 경제용어 200여 개와 함께 최근 중국의 경제 통계자료와 도표를 수록했다. 제1장에서 제5장까지는 가격체계, 재정과 세제, 금융제도 등 공유제의 기초 위에서 계획적 시장 경제를 결합시키고 있는 독특한 중국 경제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제6장부터 제8장까지는 기업관리, 무역 및 세제 등 중국과의 무역·투자관계에서 필요한 제도 중심으로 용어 해설을 실어 중국의 경제체제 전반을 가늠케 한다.

현암사/A6신/204면/4500원

여자를 생각한다 (1·2)

남궁설민 지음

“여자보다 더 많이 여자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한다”는 성형외과 의사의 여성미학 칼럼집. 제1권 ‘여자는 누구나 위대한 연애를 꿈꾼다’는 여성다움의 본질과 진실한 사랑의 의미를 찾는다. 저자는 “여성들이 꿈꾸는 위대한 연애는 진실한 사랑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제2권 ‘여자는 얼굴로 사는가’에서 저자는 표피적인 아름다움이 미학일 수는 없으며 “아름다움이란 단순한 테크닉의 표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생을 사는 자세에서 비롯되는 결과”라고 한다.

행복/A5신/각 248, 260면/각 5000원

한국어 내용 연구 1

배혜수 엮음

6편의 이름씨, 3편의 움직임씨, 4편의 그림씨에 대한 내용연구로 구성된 논문집으로 내용연구의 한 방법론인 낱말발 분석의 실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이름씨’ 편에서는 언어어휘의 친척, 물, 전통옷, 밥, 떡, 돌 등의 명칭에 대한 낱말발을 규명하고 있으며 ‘움직씨’ 편에서는 자름 남움직씨, 발화 류움직씨, 다툼 움직임씨 등을 규명한다. ‘그림씨’ 편에선 온도 그림씨, 아픔 그림씨, 슬프다류 그림씨 등을 주제로 해 각각의 특유한 관점 발견과 전체구조를 밝힌다.

국학자료원/A5신/238면/7000원

자네, 道가 뭔지 아나

효림 지음

‘이 땅에 소리없이 살고 있는 운수 납자들의 아름다운 수행 이야기’를 부제로 단 이 에세이는 25명의 스님과 2명의 재가불자들이 행했던 수행을 사실감 있게 담고 있다. 놓지도 않고 잠도 자지않는 장좌불와, 입에 가시가 돋는 목언정진, 최소한의 小食으로 정진하면서 자기를 다스리는 수행 납자들의 세계가 들어있다. 저자는 ‘이들 수행자들이 오직 ‘화두’ 하나를 챙기기 위해 좌선수행하는 것이며 이는 출가자가 갈 길이라고 한다.

대원정사/A5신/286면/5500원

하늘보고 글쓰고

옥영경 지음

아이들에게 적합한 글쓰기의 방법론을 보여주는 책. 저자의 말을 빌리면, 아이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고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은 “글쓰기가 말하기와 다른 맛을 내야 하고 형식을 잘 갖추어 써야 한다고 배워온 까닭”이며, 글쓰기 교육의 문제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없는 일을 만들어서 쓰게 하는 것과 글의 말미에 자기 ‘느낌’을 꼭 써야한다고 강요하는 데에 있다. 덧붙여 글쓰기 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풍부하게 드러내는가”에 있음을 강조한다.

소금꽃/A5신/224면/4500원

소설 휘모리

운형 지음

명창 이임례와 교수 이병기의 삶을 복원시킨 소설. 소리에 미친 한 여인 이임례가 소중하게 여기던 고수를 잃은 뒤 좌절하다가 또 한사람의 진정한 고수를 만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렸다. 이임례는 고수의 휘모리 장단에 맞춰 환과 눈물을 쏟아내면서 명창으로 우뚝 선다. 그녀는 곧 정신적 지주를 되찾을 때 온전한 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삶의 법칙을 읊조린다.

삶과함께/A5신/380면/5000원

짧고 긴 사랑여행

임병주 지음

결혼을 꿈꾸는 신세대 여성들이 배우자가 될 남성을 각기 다른 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는 지침서.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반쪽의 불안정한 삶을 안정시키는 삶의 방식이며 제도. 따라서, 결혼을 꿈꾸는 여성이 결혼상대자인 한 남성을 사귄 때 중요한 것은 다른 각도에서 남성을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대 남성의 사고방식, 성장배경, 애정관, 결혼관, 성품, 생활방식, 장애 희망 등은 간과해선 안될 요소이다.

웅진출판(주)/A5신/256면/5000원

열린 城 갇힌 性

이성오 엮음

경제 개방화 이후 심각해진 중국 성문제를 다룬 책으로 한 신문사 여 기자가 교회사에 수감된 여섯명의 여자들로부터 취재한 보고서 형식의 글이다. 여성문제와 퇴폐적인 성문제 실상, 서구적 사고로 변한 중국 여인들의 성애관념을 아내, 과부, 연인, 노처녀 등으로 나누어 취재하고 있어 성에 대한 무지와 사회주의 이념의 편견이 야기한 성문제의 심각성을 추측한다. 개인보다 공동의 운명을 강조하는 중국이 남녀관계, 성관계에 있어 어떠한 성도덕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나루/A5신/256면/4500원

헤이! 키드 닥터

왕위지아 지음/김영수 옮김

인턴의 실수담을 통해 의사의 고충과 보람, 그들의 내면을 보여주는 에세이. ‘인턴실수담’은 인턴들의 웃지 못할 실수담이 들어있어 매너리즘에 빠진 중견의사들에게 인턴시절의 순수했던 옛모습을 한번쯤 되돌아보게 하며 ‘진료실 에피소드’는 정신과, 산부인과,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진풍경을 재미있게 담고 있다. 또한 의사직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의사가 가는 굵은 길’을 통해 의사직의 구체적 면모를 엿보게 함으로써 선택의 계기를 만들어 준다.

지우/A5신/248면/4800원

TV시대의 정치

김진석 지음

텔레비전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하여 오늘의 한국정치와 정치인의 실무차원에서 텔레비전의 정치적 기여와 그 적응방법을 분석한 연구서. 미국에선 1960년대 초 TV정치 시대가 열렸으며 닉슨의 낙선, 케네디의 당선 등 대선 당락에 TV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환기시킨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TV매체도 민주정치의 실현과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TV매카니즘의 정치적 기능과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아침/A5신/292면/6000원

아빌라의 데레사

마르셀 오클레르 지음/부산 가르멜 여자수도원 옮김

성녀 데레사를 대상으로 쓴 전기문. 작가는 어릴 적부터 데레사 성녀의 책을 머리맡에 두었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일을 하자, 목숨을 부지하는 이는 그것을 잃을 것이다”라는 데레사의 격언을 자신의 표어로 삼기도 했으며 이 전기문을 쓰기 위해 데레사가 세운 가르멜 수도원을 모두 방문해 자료를 수집했다. 따라서

데레사의 행적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데레사가 여성이라는 점도 부각시켜 그녀의 부드러운 소양을 적고 있다.

분도출판사/A5신/550면/9000원

시경

이상진 외 엮음

공자가 엮은 이 시집은 총 305편이 수록됐으며 내용은 風·雅·頌의 순으로 나누어져 있다. 風은 백성들 사이에 널리 불려진 민요이며, 雅는 천자의 궁중에서 연주되던 음악이다. 마지막 頌은 종묘제례악 중의 하나였다. 시의 소재는 하늘과 신, 인간사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관계돼 있으며 제왕과 농민 등 당시 의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의 애환이 담겨 있다.

자유문고/A5신/570면/10,000원

내게 오직 하나 사랑이 있다면

전근호 지음

생활환경으로 인해 보통 학생들과 달리 자신의 의지와 믿음생활 하나로 대학에 들어간 저자의 수기. 국민학교 4학년에서부터 대입고시 전까지의 일기로 구성된 이 책은 저자의 남다른 노력과 의지를 엿보게 한다. 부록으로 실린 ‘공부방법’에서 저자는 “내게 있어 공부란,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나의 자아실현이라는 목적을 위한 일종의 수단”이라고 표명하면서 새로운 공부방법을 일러준다. 저자는 중학교 2년 중퇴에 고·대입 검정고시 합격, 그 후 재수하다가 이듬해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다.

홍성사/A5신/242면/4000원

세계의 명시를 찾아서

강우식 엮음

‘세계의 명시’로 꼽을 수 있는 44편의 시를 각 장의 주제에 맞게 배열하고 엮은이 자신의 시읽기와 감상을 덧붙인 책. 제1장의 주제는 ‘사랑’이며 브라우닝, 아폴리네에르, 보들레르 등의 대표작이 실렸다. 제2장은 ‘죽음’으로 포오, 파스테르나크, 윌터런 등의 시가 들어있으며 제3장은 토마스, 헤세, 꼭도 등 ‘자연’에 어울리는 시편들을, 마지막 제4장은 주제 ‘인생’에 속하는 공자, 커밍스, 베를렌스 등의 시가 실렸다. 엮은이는 시를 해석함과 동시에 해당 시인들을 인생기도 언급한다.

문학아카데미/A5신/280면/6000원

희한한 세상 희한한 얘기

송순 엮음

「THE IGNORANCE BOOK」 「세계 영화 명작 전서」 「기네스 북」 「세계 백과 사전」 등 십여 종의 책에서 발췌한 상식들을 엮은 교양서. 내용중엔 미국의 애국가가 사실은 술주정

